

■ 법률 칼럼

#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1. 개요**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Member)으로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청장(Immigration Petition)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도 초청장이 승인이고 승인이 National Visa Center로 송부되면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첫째 단계**  
 우선 부모님을 초청하는 이민 청원을 미 이민국에 접수하여 합니다. 이는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민국은 자녀의 시민권자 신분을 시민권 증명서, 미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 자녀와 부모와의 부모/자식 관계를 한국의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초청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신분을 한국 여권/기본증명서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이 이민청원서/초청장을 승인을 해 줍니다.

**3. 둘째 단계**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이민국은 이 승인서를 미 국무부 산하의 National Visa Center로 케이스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30일 전후하여(요즘은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National Visa Center는 케이스가 자신들에게 송부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 또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케이스 번호 그리고 인보이스 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할 아카운트를 열게 됩니다. 이 아카운트로 앞으로 진행할 케이스의 이민 비자 소속 비용을 National Visa Center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아카운트로 DS260이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 이 아카운트를 통해 부모님의 중요한 신상 서류들 그리고 초청 자녀의 재정보증 관련 서류들을 National Visa Center로 접수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

들이 모두 수합되면 케이스가 리뷰를 위해서 완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National Visa Center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 영사과로 케이스를 송부하고, 송부와 함께 케이스가 송부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 또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서울 미 대사관에 인터뷰가 잡혔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4. 셋째 단계**  
 이 인터뷰에서는 영사가 부모님과 시민권자 자녀와의 관계를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자녀의 재정 보증 서류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가지고 간 밀봉된 건강검진 서류도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범죄기록 여부인데 이는 경찰청 회보서 그리고 수사기록 회보 등을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미리 혹시라도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기소/기소 유예/벌금형 등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마지막 단계**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영사가 부모님의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비용을 지불한 택배를 통해서 영주비자가 붙은 여권과 첫 입국 시에 이민관에 보여줘야 하는 서류들이 든 소포를 받게 되십니다. 이후에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이 배달될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로 영주권이 배달됩니다.

**6. 나가는 말**  
 이민 수속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고 이민국과 국무부의 실수가 빈번하고 있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준비 시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리허설 등을 통해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터뷰장에 시민권자 자녀 참석은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권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 잇몸 질환과 임플란트 치료

치주질환, 소위 풍치라고 불리는 질환은 치아 상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치주질환은 대개 80% 이상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진행됩니다. 치주질환이 진행되면 치아 주위 뼈의 파괴를 동반하게 되고 이를 발견해야 할 정도에 이르면 심각한 정도의 골 파괴를 동반합니다.



중요한 두 조직을 잃게 되는게 첫 번째는 임플란트 식립에 아주 중요한 잇몸 뼈의 상실이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저항을 담당하는 각화치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잇몸질환으로 이를 발견하게 될 때 이 두 조직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아주 중요하며 잔존 조직량에 따라 세밀한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성 치주질환은 잇몸이 퇴축되는 현상도 같이 나타나곤 하는데 잇몸 퇴축은 치주질환이 진행되다가 잇몸 치료에 의해 질환 원인이 사라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다시 건강한 잇몸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면 치주 지지골 쪽으로 퇴축되게 됩니다. 이 퇴축 현상은 각화치은이라고 부르는 치아 주위 잇몸 조직의 상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화치은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치주골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 음식을 씹는 다든지 말을 하면서 일어나는 입술이나 뺨 근육의 움직임에 잇몸 조직이 동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각화치은은 분홍빛을 띠고 있으며 하방으로 붉은 색의 잇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색의 잇몸은 쉽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 구강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도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어금니의 경우 이 두 조직은 임플란트 식립과 임플란트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어금니의 경우 아래 턱 내에 신경관이 지나가는데 상부 치아 지지 골 조직이 상실되어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잔존골이 충분치 않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를 빼게 되면 잇몸의 바깥쪽 부분이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이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잇몸 뼈의 두께가 좁아지곤 합니다.

어금니의 강한 힘에 견뎌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두껍고 가능한 한 긴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잇몸뼈의 높이 나 두께가 모자라면 이상적인 임플란트 치료가 힘들게 됩니다.

사진=shutterstock

잇몸질환으로 잇몸 퇴축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는 질환의 발생과 치유로 상당량의 잇몸 퇴축이 일어난다면 스트레스에 저항력이 강한 각화치은이 상실됩니다. 결국 잇몸 질환으로 인해 이를 발견하게 되면 아주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 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